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7월

선교편지 제 122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디고스 예일 교회를 중심으로 띠구만 지역, 익핏 지역, 그리고 아팔라야 지역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고스 인근 지역의 선교 사역은 아직 그 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띠구만 지역은 '띠구만 초등학교'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학년을 달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익핏 지역은 '익핏 초등학교'에서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팔라야 지역은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에 채플 시간을 통하여 전교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토요일에는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다바오의 '바카카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현재 다섯명의 헌신된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와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록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 사역을 전담할 '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저희 사역팀이 그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이후 훌쩍 떠나 버리면, 마치 바람이 잠시 불다가 지나가버린 것처럼 사역의 흔적이 별로 남지 않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이나 주민들을 계속 돌보거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오고 갈 때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습관처럼 '주님, 이곳에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절로 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지역은 여느 대 도시처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거나,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십 여년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도 큰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넓고, 왕래가 많은 도로가 전과 다름 없이 아직도 공사 중이고, 동일한 관리들의 변함없는 행정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토지는 오래 전부터 몇몇 대지주들이 소유하여 바나나 또는 파인애플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주 정부는 향후 다양한 용도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유휴지 상태로 보유하거나, 임시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지주나 주정부로부터 교회로 사용할 만한 규모의 토지 구매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한 토착민들이 보유한 땅들은 세월이 지나 후손들이 나누거나 판매한 것으로, 그나마 매매가 가능한 땅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들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용을 깊이 살펴 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구속력이 없는 편법으로 땅을 분할하거나 판매를 해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대로 된 문서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정부에 등록된 문서와 실제 상황이 너무 달라서, 아쉽지만 교회용으로 구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지인들이 거래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부분 초기 검토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부지 구입이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신된 선교 후원자를 통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2년 이상 기도해 왔던 일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디고스예일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마띠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거의 일년여 기간을 기도하면서 돌아 다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띠 지역이 아닌 띠구만 지역에 디고스예일교회를 건축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비록 토지 구입은 쉽지 않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뭇 영혼들이 구름 떼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13)**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요즈음 이곳은 고온 다습한 날씨와 더불어 때때로 집중 호우가 내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닥치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바카카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카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동네 전체가 진흙 밭으로 변하는 것은 예정된 일이고, 호우가 내릴 때면 침수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라고 까지 할 것 없는 대나무로 엮은 교회 벽은 너무 취약해서 온갖 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붕은 얇은 철재 판으로 되어 있어서 강한 바람만 불면 날아갈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연결된 전기선이 수시로 끊어지고, 상수도가 오염되어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불편한 가운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정도 이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형편은 열악한 정도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은 우기에는 온 동네 바닥이 질퍽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골목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 닭, 개들도 주민들과 함께 가까이 살다 보니,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는 동네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린 엄마들의 거의 체념한 듯한 무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만이 절실합니다.

바카카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과 더불어 어린이와 함께 오는 엄마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취미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카카 지역은 이슬람권 마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음 전파 형태가 소극적인데,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엄마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이후에 짧은 성경 공부도 같이하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취미 공예도 가르쳐 주면서 접착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이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슬 공예도 가르쳐 주었고, 요즈음에는 '뜨개질'을 가르쳐 주며 간단한 가방과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취미 활동으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배울 기회가 많지 않는 매우 특별한 '기술'이어서 엄마들의 참여가 매우 진지합니다.

바카카 교회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땅을 렌트 하여 간이 건물을 짓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물은 옆 집으로부터 임시방편으로 전기선과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소위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며, 또한 상대가 현지 물정이 어두울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인이다 보니,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잘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보내시고, 이곳에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무쪼록 이 귀한 사역을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